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 어간다. 세월은 육체의 활기를 빼앗아 가지만 지혜를 가져다준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더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더 죽음을 무시 할 수 있다. 짧은 여생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분명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많은 일을 경험하는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보호 할 줄 아는 사회는 복된 사회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른과 젊은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스승과 제자 간, 직장 상하 간, 그리고 노년과 청년 세대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그 탓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의 주체인 어른과 젊은이가 변해야 한다. 우선 오늘의 노년 세대는 옛 선조들과 오늘의 젊은이를 이어주는 교량과 같은 존재가 돼야 한다. 따라서 변화된 시대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가치와 지혜를 옛 선조들이 남긴 교훈에서 찾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에게 전달하고 스스로 몸소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들도 많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이와 똑같이 있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개처럼 살다 원숭이처럼 늙은 것은 서럽다. 그 서러움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노여움이 되고 소신은 아집이 된다. 마이크를 잡아야 들 어주는 사람이 없다. 말이 많아질 수록 주위에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오죽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을까.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할 것도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뚫는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 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배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 고 버려야 하고 할 겨를조차 없었다. 지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대한민국 노인의 '오늘'은 과연 암울한가. 좀 산다는 나라 가운데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다.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은 바로 우리 이야기이다. 어쨌든 불교의 설화 모음에 나타난 노인의 지혜는 끝없이 많다. 이제 멧잇는 노년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노인이 사는 지혜를 터득해 보자. '논어' 자한 편에서 '공자는 4가지가 완전히 없었다(자절사·子絶四)'고 했다. 4가지란 의(意), 필(必), 고(固), 아(我)다. 여기서 '의'는 근거 없는 억측

이요, '필'은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자세요, '고'는 융통성 없는 완고함, '아'는 오직 나만이라는 집착으로 풀이 된다. 이 4가지가 없어야 성인이라 했다. 또 탐무드는 인간의 생애를 7단계로 설명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모시듯 비위를 맞춘다 두 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은 새끼 양, 웃고 떠들고 마 음껏 뛰어다닌다. 열여덟 살은 말, 다 자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 한다. 노년은 원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이 지니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 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라 하지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이기려 하지 말고 저 주시 구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이란다. 이제 부터라도 과연 나는 불어난 나이만큼 더 현명해 졌을까? 문득 창밖을 바라보면서 자문해 봐야 한다.

社 說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취업자가 석 달째 크게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 과 비교해 39만2천명 감소했다. 3월, 4월에 각각 19만5천명, 47만6천명이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가 석달 내리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개월 연속 감소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도 12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천명이나 증가 하면서 실업률은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4.5%로 치솟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 다른 곳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들까지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역시 14.5%이며,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26.3%로 이 역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다.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지·실업자 구제 정책의 시급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 같은 취업자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소비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지만 경기 안정화 정도에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 집단감염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확산세를 통제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하루 1만여 명이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가 석달 내리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개월 연속 감소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실업자 수도 127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3천명이나 증가 하면서 실업률은 1999년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4.5%로 치솟았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아 다른 곳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들까지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역시 14.5%이며,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무려 26.3%로 이 역시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다. 대부분의 고용지표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유지·실업자 구제 정책의 시급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 같은 취업자 감소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생활 속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행복한 여름나기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더위가 유난히 빨리 찾아오는 편이다. 벌써 올해 첫 폭염특보가 대구 등 영남 내륙에 이어 전라도 동부지역에 발효되었으며 올해의 폭염일수는 지난해보다 열흘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을 피하고 여름을 즐기기 위해 친구, 연인, 가족 모두 바다, 계곡, 물놀이공원 등으로 물놀이 예정인데 여름 휴가를 안전하게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소 방 청 의 최근 3년 간 (2016~2018)통계에 따르면 1,274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하여 6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감시와 보호를 받지 않는 계곡, 하천 등에서의 인명피해가 높게 나타났다. 행복한 여름나기를 위한 여름철 물놀이 수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아보자 ▲ 의식 없는 사고자를 구하였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 구조요원 또는 119에 즉시 신고한다. 가장 먼저 인공호흡을 실

시한다. 물을 빼고자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사고자의 위속에 있는 물과 음식 물을 오히려 역류시켜 기도를 막을 수 있으며,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고 담요나 수건으로 체온을 유지시켜야 한다. ▲ 물에 빠졌을 때 흐르는 물에 빠졌을 때는 물의 흐름에 따라 표류하며 비스듬히 헤엄쳐 나온다. 옷과 구두를 신은 채 물에 빠졌을 때는 심호흡을 한 후 물속에서 새우등 뜨기 자세를 취한 다음 벗

기 쉬운 것부터 차례로 벗고 헤엄쳐 나온다. ▲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 계곡에서 야영지를 선택할 때는 물이 흘러간 가장 높은 흔적보다 위쪽에 있도록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고지대와 대피로가 확보된 곳을 선정하며 낙석과 산사태 위험이 없는 곳으로 선택한다. 불의의 사고는 언제나 그렇듯이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다. 하지만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과 수난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잘 숙지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겁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엄갑현/무안소방서소방사**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호남신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대표전화 (062) 229-6000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 고 국 (062) 224-5800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기사제보 (062) 971-7400	Tel (02) 2238-0003
팩 스 (062) 222-5547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